전남도교육청 '전남 일반고 교육력' 향상 주력

교육현장 맞춤형 지원 위해
수능 D-100 순천여고 방문
"대입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지난 6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순천여자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가 일반고 교육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진로진학상담센터 내실화, 전남형 J-Final 수능 모의고사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진학 지원 체제를 강화해 일반고 교육력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민선 4기 후반기를 맞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중교통' 현장 소통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추진한다. 교육공동체와 소통을 강화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K-에듀 시대'를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6일 수능 D-100일을 맞아 순천여자고등학교를 찾아 학생 및 교원들과 함께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반고 교육력 강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김 교육감은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및 수능등급 향상을 위한 수능 레벨업 프로그램 지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시스템의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상황 분석 결과 공유 △진로진학연구회를 통한 정시배치표 개발 및 보급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또 '전남형 J-Final 수능 모의고사'를 자체 개발해 직업탐구를 제외한 전 과목에 걸쳐 시행한다. 수능형 평가 문항 출제 역량 강화 연수 인원은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해 대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유형별 면접지도 지원체제 구축 △대학연계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 제공 △대입정보 박람회 및 대입정보 설명회 운영 △진로진학상담센터 수시 면접지도 등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을 격려하고, 순천여고의 자랑인 양궁 훈련시설도 돌아봤다. 이 학교 출신인 남수현 선수는 이번 파리올림픽에 출전해 여자 양궁 단체전 10연패를 달성하는 등 활약하고 있어 후배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일반고의 교육력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과제"라며 "늘봄부터 진학·취업까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 교육 지원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 앞으로도 일선 학교에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금빛 스매싱' 안세영 선수에 축전

광주체중·고 출신 세계무대 제패
학업·더위에 지친 학생들에게 희망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수에게 축전을 보내 격려했다.

안세영 선수는 지난 5일 파리 포르트 드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단식 파이널'에서 중국의 허빙자오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 교육감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불굴의 투지로 '셔틀콕 여왕' 자리에 올랐던 모습을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며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이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1996년 이후 28년 만이라고 하니 더욱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의 딸' 안 선수의 '금빛 스매싱'은 더위와 공부에 지친 우리 광주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다"며 "광주 교육가족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세계 무대를 제패한 압도적 기량을 토대로 앞으로 더욱 빛나는 활약을 펼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안 선수는 광주풍암초등학교, 광주체육중학교, 광주체육고등학교 출신으로 남다른 천재성과 근성을 토대로 2017년 국가대표로 발탁된 이후 태극마크를 달고 뛰어왔다. 안 선수의 모교인 광주체고는 경기 당일 시청각실 도담마루에서 광주체중·고 학생과 교사들이 모인 가운데 결승전 응원전을 펼쳤다. **강주비 기자**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결식 우려 학생에 집반찬 지원

방학 기간 120명 대상
보냉박스로 신선도 유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광주교육학부모지원단과 함께 '방학 중 결식학생을 위한 집반찬 지원 사업'을 펼친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방학기간 보살핌이 필요한 결식 우려 학생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0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이후 가정과 학교 관계자의 만족도가 100%에 달해 올해는 대상을 120명으로 확대했다.

대상 학생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학교(광주대성초 외 9교)와 연계해 선정했으며, 여름방학 기간인 8월 한 달간 주 1회씩 총 4회에 걸쳐 반찬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광주교육학부모지원단은 지역 봉사단체인 '광주대명여성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의 조리 재능기부를 받아 반찬 제공일 오전에 조리해 학교로 전달할 계획이다. 각 가정 배달은 학생들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각 학교 교육복지사가 맡는다.

밑반찬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보냉박스, 얼음팩 등을 활용하고 섭취기간을 표시하는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손편지도 함께 전달한다.

'집반찬 지원' 봉사에 참여한 광주교육학부모지원단 소속 한 학부모는 "아이들로부터 감사의 쪽지를 받을 때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도울 방법을 고민해볼 생각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함께 키우고, 함께 보호해야 하는 광주 학생들을 위한 학부모들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한다"며 "교육주체인 학부모가 광주교육의 동반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